산상수훈39

나는 지금 제대로 된 양식을 먹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11절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이게 문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라면 우린 너무 많은걸 구하고 있는거죠? 일용할이란 말이 뭐에요? 한국말로 하면? 하루의 양식이죠? 하루에 쓸 양식. 그런데 하루에 쓸 양식만 구하십니까? 자, 우린 지난주까지 진리를 마음으로 가진 성도들의 그 상태에 관해서 공부를 한겁니다. 성도는 씨가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로 이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씨로 받아서 아들이 되는거라고 그랬죠? 그 상태가 되면 그들은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늘들 안에 나를 낳는 진리의 말씀 그걸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갖게 되는거고 그 상태가 되는거고 그러면 그 이름, 쉠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에서 분명히 이야기 해주죠? 말씀, 그 이름이 깨끗하게 하기오스, 거룩하게 된 자들이고 그것이 바로 이땅에서 흙에 불과한 나에게서 그리고 이 역사, 이 크로노스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늘의 뜻 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우리의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미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섬김. 그 진리의 섬김, 그 말씀의 섬김, 그 통치, 성경에서 사실 그 통치, 다스리다 라는 개념은 없어요. 섬김의 개념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스림, 통치가 섬김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에 의해 내가 섬김을 받게 되면 그게 바로 내가 나라가 되는거잖아요? 그게 바실레이아 거든요? 그 바실레이아, 바실류스, 왕이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은데, 왕이라는 단어가요 한자도 마찬가지에요. 하늘, 땅, 사람 이렇게 썼습니다 원래. 원래 글자가. 그것이 하나로 통하면 왕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1이라는 숫자로 썼습니다 옛날에는요.(王)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나가 되면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거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려면 우리에겐 그렇게 되기위한 어떤 에너지, 양식이 필요 하겠죠? 그래서 그 상태 바로 다음에 양식에 관한 청유가 나오는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죠.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주기도문의 모든 청유는 Already, but not yet(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아닙니다)의 그 눈으로 봐야 하는거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건데, 이땅에서 우리는 그 완전한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Already, but not yet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부 부정과거시제 명령형으로 동사가 쓰여졌다고 했어요.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시제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일용할 양식에 관한것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확실한 긍정 '나에게 이미 주어졌어' 라는 그런 확실한 긍정과 그러한 긍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간절한 청유 '그렇죠! 그거죠! 그거 없으면 안되는거죠!' 라는 이 청유. '근데 그걸 나에게 주셨네요!' 라는 그 긍정. 그렇게 봐야 되는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식을 주세요' '나에게 그 떡을 주세요' 그 양식이 알토스,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떡, 양식, 같이 써요 그냥. 그 '떡을 주세요,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그런 이가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과정이 뭐겠어요? 누가 양식을 달라고 그래요? 거지도 배부르면 양식 달라고 안그럽니다. 당연히 굶주림 입니다. 배고픔 이에요. 지독하고 처절한 굶주림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먹을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담들의 자존심이에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된 아담들의 자존심. 그래서 주님은 '주린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거에요. 왜냐하면 절대로 주리지 않아요 이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것들로 자기의 주림을 채우려고 하지 '나는 주린 자구나' 라는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그게 아담들의 속성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보세요.

21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여기 보면 '이제' 라는 단어 있죠? 눈이에요, 지금. 누니데, '그러나 이제는' 에서 쓰인 그 단어죠? 지금 여기에서 주린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이제' 라는 말은 크로노스의 이 역사를 이야기 하는거에요. 여기에서 자기들이 주린 자라는것, 그런데 이 주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다른 차원의 어떤 것이 오기 전에는 주린자 일수 밖에 없다는 것! 그걸 아는자, 그자가 복있다 라고 이야기 하는거에요. '나는 주린자가 맞네요!' 라고 인정하는 그자가 복이 있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눈 이라는 그말은 '그날' 이나 '그때' 라는 개념의 반대적 개념으로 보시면 되요. 여기에서 굶주린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그날, 그때의 떡으로 양식을 먹고 여기에서 배가 부를거에요. 물론 영적인 이야기인거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내가 주린 자라는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쎄메론' 즉, '그 날의 양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거에요. '쎄메론' 이 뭐라고 그랬죠? 그때 제가 한번 말씀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오늘날'이 오늘이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 '쎄메론' 이라는 단어는요 '그날', '그때' 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의 양식은 아니라는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굶주린 자는 복이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양식은 못찾는거에요. 그러면 그사람들은 '그날', '그때', '거기' 의 양식을 찾게 되겠죠? 이게 주린자 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에요. 여러분이 그 굶주림을 경험하고 계시냐구요. '아! 나는 그거 없으면 안되!' 라는 그 굶주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애굽에서 건져 내온 당신의 백성들을 이 광야, 그것을 스데반이 '광야교회' 라고도 이야기 하는데, 이 광야는 크로노스의 이 인생, 역사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걸 숫자로 바꾸면 40입니다. 그게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굶주리게 하고 목마르게 해버리셨어요.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굶주리게 하셨다고 하세요. 광야에서. 근데 굶주려요? 여러분 진짜? 지금 살을 어떻게 빼야 될까 고민중이죠? 다. 그러면 이 굶주림은 무슨 굶주림 이겠어요? 그 굶주림은 아닐거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게 아니라, 떡 먹으면 이렇게 살찌는 거에요. 떡으로 사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거다, 그게 양식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드셨다는 거에요. 당신 백성들을.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 굶주림을 경험해야 되는거죠? 그리고 인정 해야 되는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적 기근은 아모스서 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세요.

11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먹을건 많다는 거에요) 어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창세기에서도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예수라는 아들을 낳는 '완성'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인물이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넷 거기에서 완성이 되는거에요. 그럼 그사람은 어떤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그 기근이 든 애굽에서 모든 양식을 그에게 맡기는 거에요. 그래서 그가 양식을 나누어 주게 만드는 거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성실히 살았더니 세상의 양식을 관장하는 사람이 되더라 라는 것엔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이 양식을 설명하는거에요 요셉을 통해서도. 그렇다면 성도는 이 광야 인생길에서 말씀이라는 양식, 하늘의 떡이라는 그 양식에 굶주려야 되는겁니다. 그래야 '그날' 의 '그 양식' 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죠? 푸토코스. '그거 없으면 나 죽어요' 가 푸토코스라고 그랬습니다. '페네스' 는 상대적 가난, '푸토코스' 는 절대적 가난. 그 성령안에서 말씀안에서 진리안에서 정말 가난한자 '그거 없으면 나 죽어요'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자가 '푸토코스'한자 그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야 하는게 성도인데, 성경은 그 말씀 그 진리를 또 '의' 라고도 해요. 마태복음 5장 6절 보세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조금 전에는 '말씀' 에 굶주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걸 '의'라고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야 하는거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굶주림을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라고 그랬어요. 역사가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추악하고 이렇게 공허한건 말씀의 굶주림 때문이지 그걸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채울수 있는 굶주림이 아니라는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굶주림, 그 말씀을 성경이 '의'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인간들이 그 말씀이 아닌 그 진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인간측에서의 어떤것들을 동원하여 인간들의 그 굶주림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나타난 현상이 다 뭐라는 거에요? 말씀이 진짜 '의' 라면? 이 모든 시도와 현상은? '죄' 라는 거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 그러니까 자꾸 인터넷 게시판에 보니까 뭘 또 아담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뭐 이런 질문도 하셨던데 '죄'는 뭐고 '의'는 뭐에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그 정도의 개념은 딱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요. '죄'라는건요, 그냥 도덕적, 윤리적, 사회법적, 인간들이 합의하여 그건 악한거니까 하지 말자라고 금한걸 해버리는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적어도 성경은. 물론 그런것들도 죄죠. 인간이 행하는것 중에 죄 아닌게 어디있습니까? 하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 라는건 하나님이 하늘의 그 진리 있잖아요. 그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그냥 못주세요. 왜냐하면 현상계, 이 물질계는 초월적인 그 세계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진리를 주기 위해 이 땅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피조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어떤 것을 들어서 그 진리를 설명 해주셔야 되요. 그랬을때 하나님께서 이 아래의 것, 그 하늘 아래의 것을 들어 그 위의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나타난 현상, 형상으로 준 모든것 있죠? 그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 아래의 것들에 보이는 것들에 묶여 있으면 그걸 '죄'라고 그래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 아래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알아 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의'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의'라는것을 알아 버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죄' 라는건 없는거네요? '의'를 가르쳐 주기 위해 '죄'를 준거니까. 그러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의'라는거는 이게 개념이 통해요? '의' 라는게 뭐냐면 '죄' 가 아닌 그것이 '의' 거든요? '의'를 알게 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래의 것으로, 모형으로 주신것이 '죄' 라면 그걸 알아 버렸어요. 그때 그 '죄' 라는게 나와 아무 상관 없어지면 그걸 '용서' 라고 해요. 그러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의' 도 없어요. 보세요, 그러면 '아담',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뭔지를. 그런데 아담이 아래의 것, 사람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면 그 상태를 '죄인' 이라고 해요 이거를. 근데 이 아담이 '아! 나의 부끄러움, 나의 존재의 완성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준비하신 그 제물에 그 껍데기 그 옷으로 가려야 나는 비로소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이, 아들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이 아담은 '의인' 이 되는거에요 그 즉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죄는 없는거에요. 그러면 아담이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런거를 묻는게 옳아요? 진리를 알았으면 아담은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 에요. 아들. 그 아들을 설명하기 위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그냥 나타난 형상, 그 형상으로만 이해해버리면 '죄인'이고 그것으로 그가 아들이 뭔지를 알았으면 그걸 '의인' 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죄가 개념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의인도 없다니깐요? 그냥 '아들', '그분' 이라고 하는거에요. 자, 쉽게 말해서 성도는 이러한 인간 세상의 악함과 공허와 추함과 어두움의 그 해결책은 그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다는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의 영이 간섭하여 들어간 사람들 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반응이요, 추구인거에요. 보편적 아담들은 이 역사와 인생의 배고픔을 다른것으로 채우려고 열심히 달려요. 도덕과 윤리와 발전, 성숙, 번영, 평등, 평화, 뭐 이런걸로 역사와 인생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힘으로. 성경은 그러한 보편적 아담들의 시도와 추구를 뭉뚱그려서 율법 혹은 행위 라고 이름하고 그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과녁을 벗어났네' 이렇게. 그건 헛배를 부르게 만드는 공갈빵 같은거에요. 그럼에도 인류는 그러한 것으로 이 역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메뉴들을 생산해 냅니다. 개발하고 생산해 내요.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같은 이데올로기, 교육, 종교, 과학, 문명, 선행체계, 지식체계등을 생산해 냅니다. 여러가지 메뉴들을 만들어서 역사를 먹여요 끊임없이 인간들은. 그리고는 '배부르다!' 하면서 자기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배부른 자들은 복받은자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25절보세요.

25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계시록 3장 17절 보세요.

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이 크로노스의 역사속에서 자기들이 배고픈 자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주림 영원한 주림이 뭐에요? 우리는 뭘 먹어야 그걸 에너지 삼아 사는데 영원한 주림이라는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영원한 죽음속으로 들어가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는거에요. 반면에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땅의 소산으로도 우리의 생명 양식을 없다는 것을 아는 그런 영적 굶주림과 가난함 속에 있는 이들은 하늘의 풍요로 채워져 있는 자라 라는 역설을 던지신단 말이에요

계시록 2장 9절 보세요

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식을 얻어서 생명으로 이를 수 있다라는걸 아는 이들의 실상은 하늘의 부요 가운데 있는 이들이라는거에요. 근데 그러한 하늘의 부요에 반대편에 있는 이들을 누구라고 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표면적 유대인은 뭐죠? 율법주의 대표로 잠깐 등장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그랬단 말이라구요. '이면적 유대인' 안에는 우리도 들어 가는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라는 의미니까. 그렇죠? 그 표면적 유대인, 율법주의의 대표로 등장 했던 그들을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사단의 교회 그래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회당이 수나고게 거든요? '회당',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인데 사단의 교회가 있어요. 사단의 교회가 뭐라는거에요? 이땅에서 이 땅의 것들로 배부를려고 하는 그런자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 인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 사람들. 사단이라는 말이 사타나스가 그냥 대적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교회는 교회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해서 목적지를 잘못 잡게 만들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달리는거. 그걸 사단의 교회라고 그래요. 중들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우리한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요? 사단의 회당은 교회에 있단말입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양식을 추구하고 그 양식으로 배불리면 그건 졸지에 사단의 군대가 되는거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의 내용을 제가 하나 하나 풀어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할 양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할 양식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요 호아르토스 오고 호에피우시오스 디도미 에고 쎄미론 이에요. 호알토스가 그 떡이거든요? 그 양식.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맨 앞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제는 뭐에요? 핵심 키는 떡이에요. 떡. 양식. 근데 그 떡은 에피우시오스의 떡이래요. 에피우시오스가 뭐냐면, 그 에피라는 단어가 어디어디 위에 라고 그랬죠? 아나 라는 것은 탈공간적 위 그 하늘의 것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노뗀 그러면? 위로 나다 거듭나다 이런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에피는 그것보다는 '공간적 위'에요. 위의 양식인데 어떤 양식이냐면 '위의 것으로 있는 그 양식' 이게 '일용할 양식의' '일용할' 이에요. 에피우시오스.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읽냐면? 꼭 필요한, 생존을 위한 이렇게 읽어요. 그런 의미로 쓴다구요. 위에 존재하는 그것 이라고 써놓고 꼭 필요한것 생존에 필요한것 이런 의미로 읽는다구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것 생존을 위해 필요한건 위에 있는 그것 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꼭 필요 한것' '생존에 꼭 필요한것' 진짜 의미는 모르고 그냥 '꼭 필요한것' '생존에 필요한것' 이렇게만 우리가 써버리면 일용한 양식은 뭐에요? 에피우시오스, 호알토스는? 우리가 이 역사속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여기에서의 생존에 꼭 필요한 그 양식을 주세요라는 말이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청유를 갖고 그런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먹을거 내가 입을거 내가 마실거 이땅에서 내가 필요한 그걸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럼 아예 그냥 확실하게 '오늘것'만 구하던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런 기도라면 바로 밑에 있는 이 구절과 충돌을 하게 되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보세요.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보세요. 바로 위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고 바로 밑에서는 '뭐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마' 이게 말이되요? 예수님이 일구이언 하는것도 아니고? 그러면 성경자체가 충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일용한 양식'은 육적생존에 필요한 먹을것과 마실것은 아니잖아요? 이부분을 아람어 성경으로 보면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떡을 주옵소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일' 이라고 번역이 된 사용이된 아람어 '마헬'은 어제, 오늘, 내일의 그 내일이 아니라, 다가올 '날' 차원이 다른 이 시대가 아닌 다른 세대의 그날 이란 뜻이에요. 그날의 떡으로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걸 에피우시오스, 위에 있는 그거 라고 이야기 하는거에요. 에피우시오스. '일용할'이 아니라니까요. 차원이 다른 그런 시대의 그 떡 이라는 말이죠. 아래의 떡이 아닌 위의 떡. 이 크로노스의 역사의 떡이 아닌 카이로스의 떡. 이런 말이에요. 그러한 내일의 떡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곳이 출애굽기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일의 떡을 주신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떡이 내려 오는데 어떤날은 내일의 떡까지 함께 주신적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16장 2절 보세요.

2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이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혼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4 그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율법은 토라에요 토라.

5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육일째 에는 내일의 양식을 미리 준다 그래요. 내일의 양식, 안식일의 양식 그리고 그 양식은 일용할 양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떡을 요구하죠? 근데 어떤 떡이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떡이라고 그러죠? 애굽에 떡을 달라는 거에요 지금. 광야에서 그리고 그 떡과 함께 먹었던 고기도 그리워 해요. 고기가마 옆에서 앉아서 먹던 떡.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200만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마 옆에서 떡을 먹었던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두 공히 고기가마 옆에서 떡을 먹지는 않았을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뭐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을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청원으로 이렇게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고기가마 옆에서 떡을 먹었을때의 그떡. 이라고 이야기 한다구요. 근데 이스라엘이 적어도 광야에 나온사람은 전부 그 경험을 한적이 있어요. 언제 입니까? 유월절에~. 유월절에 어린양을 잡아서. 인수대로 잡아서 뼈는 꺾지 않고 그 고기를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 먹고 그것과 함께 무교병을 같이 먹었죠? 쓴나물도 먹고.그러면 고기가마 곁에서 앉아서 먹었던 그 떡은 유월절의 그 고기와 그 떡을 이야기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기주세요 고기주세요 했을때 그 고기는 유월절 어린양이라는 그고기를 이야기 하는 거에요. 이스라엘이 전체가 공히 경험 했던 먹었던 그리고 그리워 하는 그 고기. 예수 라는 고기라는거에요. 예수의 살. '어? 그럼 먹어야 되는거 아닌가? 조금만 더 들어 보세요. 그 육신의 떡과 그 육신의 고기. 어린양의 그 고기와 무교병을 육신의 고기 육신을 위한 고기. 나를 위한 고기. 나의 구원을 위한 고기. 나의 육신을 위한 떡. 그걸로 그냥 받아 먹으면 그건 죽음의 고기 죽음의 떡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광야의 떡 즉, 만나를 그냥 만나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이야기 한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긴 줘요. 주는데 그걸 의미로 먹지 않고 떡으로만 만나로만 받아 먹으면 죽는다라고 그러신다니까요? 만나라는 단어 뜻이 '이게 뭐야?' 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what is this?'가 만나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걸 의미로 못먹고 그냥 율법으로 껍데기로 먹어 버리면 그걸로 죽는다니깐요? 그래서 만나에요 이름이. 그 만나는 하나님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왜? '이건 뭐야?'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만나에요. 요한복음 6장 49절 보세요.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만나를 그냥 만나로 먹어버리면 그걸 먹고 죽는다는 거죠. 만나는 하나님이 준거에요. 마귀가 준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진의대로 못먹으면 죽는다라는거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주는 그 떡과 고기는 육신을 살찌우고 이 육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육신을 빛나게 하는 그런 떡과 고기여서는 안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성숙시키고 변화 시키고 가치있는 존재로 만드는데 사용되면 안되는거에요. 잘 새겨 들으셔야 되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깨닫는데에 도구로 쓰여야 되는 것이지 나를 증명하고 나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면 그게 내 육신을 살 찌우는 만나가 되어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내일의 떡 아니죠? 이 땅의 떡이죠. 그리고 그거 먹으면 이 땅에서 배부르게 되는거고. 그러니까 말씀을 육신으로, 법으로, 율법으로 받아 버리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먹고 죽는거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서 그 광야의 떡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떡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마타르레헴 이라는 단어는 비로 내리는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는데, 그 떡은 비로 주는거야' 라고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그건 그냥 떡이 아니라 내가 그떡을 비로 주는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마타르레헴이에요. 그럼 그 비가 뭐길래? 신명기 32장 1절보세요

1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 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2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비는 뭐에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 하는거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그 떡, 그 예수, 그 양식을 그 말씀을 그 성경을 진리의 비로 받지 못하고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한 나를 증명하기 위한 그런 양식으로 받으면 너희는 그거 먹고 죽는다는 거에요. 그럴거면 차라리 절에 가세요. 달마사로 가시던지. 관음사로 가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로 내리시는데 그걸 비로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비에 맞아 죽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비는 우리의 기식, 푸쉬케, 육을 죽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 때 기식하는 모든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식 이라는 그 단어가 푸쉬케 에요. 육신 이에요. 은혜의 비가 내리면 육신이 죽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의 대표로 먼저 죽어 준거에요. 그걸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냥 알기 쉬운 그림으로 그려 주는겁니다. 그때 거기에 빠져 죽은 기식하는 것들은 '나'에요 '나'. 그리고 그렇게 빠져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안에 들어가 살아 나는거에요. 영으로. 물 위의 것으로. 동동 떠서.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거여야지 우리를 시퍼렇게 살아서 펄펄 뛰게 만들어 주는게 되어서는 안되는거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시고 그 말씀을 거기에 붙여 놓으신 거에요. '내가 이렇게 떡을 주는건 그들의 이 율법을 마음으로 간직하나 아니면 법으로 받아서 열심히 뛰나 이거 시험하려고 주는거야' 라고 말씀하시는거에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의 양식 차원이 다른 양식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안식일 전날 거두는 6일째의 양식으로 또 한번 보여 주시는 거죠. 안식일 이라는건 하나님께서 홀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거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의 그 양식을 여섯째날의 그 자칼과 네케바 있죠? 그 자칼과 네케바라는게 네케바가 여자고 자칼이 남자니까 근데 그 자칼이 남자가 씨로 오는거잖아요? 3번째 날과 6번째 날이 짝이니까. 이제 이건 설명 안해 드려도 다 아시겠죠? 그 이들이 내일의 양식을 거둔자 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6일째에 그 내일의 양식을 주는 거에요. 그러면 그들은 '아!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내일이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이 오늘 온거 아니에요? 내일이 없는데 그 때의 양식이 왜오냐구요 나한테. 뿐만 아니라 그 양식이 오늘 나에게 주어 졌다라는건 이 크로노스의 역사속에서 그 내일을 조금씩이라도 맛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감정적으로 뭐 좋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이렇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땅에서 분명히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현실 천국, 잠깐 잠깐 오는거지만 그걸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맛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양식, 그 내일의 양식은 이 땅의 것 안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성전, 예수, 성경, 호코스모스의 세상, 사람, 원리, 법칙, 이런것에 담겨져서 나타난것, 인식되는 것,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것은 직접 땅에게 설명되어 질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직접 그 하늘의 것이 이땅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직접 쏘아 진다면, 그 하늘은 '거룩' 한것이 아니죠? 아니, 땅도 담을 수 있는게 그게 무슨 거룩이에요 아니 잖아요. 그래서 그 깨끗한 거룩은 이 땅의것 안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하늘의 계시를, 하늘은 우리 수준만큼만 계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계시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 보세요.

6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에레브)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7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가 여기 똑같이 나오죠? 에레브, 모케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저녁에는 뭘 안다고 그래요? 제가 창세기 1장을 설명해 드릴때 저녁을 뭐라고 그랬죠? 에레브라는 단어가 덮음, 어두움, 감추어진, 비밀,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저녁, 에레브가. 저녁, 이 아래의 것이죠? 그렇죠? 이 아래의 것으로 우리가 그 위의 것을 알면 그거를 모케르, 아침, 활짝 열림, 현명해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녁, 에레브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해요? 뭘 안다고 그래요? '여호와 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안다고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아! 우리가 애굽에서 나갈 수 있는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저녁때 안다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그 저녁을 잘 견뎌 내면 인내로, 휘포모네. 이겨내면? 아침이 오는거에요. 그런데 그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호라오, 본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건 우리에게 반드시 닥치는 필연적 과정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 라고 그래. 이게 첫째날이잖아요? 그때는 뭐 1, 2, 3, 4, 숫자의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 '첫째날'은 아니겠죠? 그걸 '하나'라 그래. 그걸 '통일' 이라 그래. '연합'이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 하는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저녁때 우리가 '아!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거지!' 라는걸 알게 되는데 그 저녁의 양식으로 그걸 안다면 저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준게 율법이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거에요.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걸 알면되' 라고 이야기 한거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저녁에 먹을 양식은 고기, 바싸르 인데 고기라 그러구요 아침에 먹을 양식은 떡 이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16장 8절, 16장 12절 13절보세요.

8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ㄴ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12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얼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13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슬은 말씀이죠? 그렇죠? 저녁의 양식은 고기, 아침의 양식은 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고기던 떡이던 그걸 전부 양식, 떡 이라고 그래요. 떡을, 양식을 고기로 먹는 자와 그 양식을 떡으로 먹는자가 있다는거에요. 그런데 고기를 먹는 자는 저녁의 사람, 떡으로 먹는자는 아침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저녁의 고기를 아침의 그 떡으로 먹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저녁의 고기를 끝까지 고집하는 그 사람은 그 고기를 먹고, 저녁에, 에레브의 양식이니까 저녁의 사람으로 죽는거에요. 유다가 저녁으로 나갔다고 그러죠? 밤에 나갔다. 밤의 양식을 먹고. 그래서 그 유다가 받은건 부스러기에요. 율법을 상징하는 부스러기. 다른 제자들은 덩어리로 줬는데 꼭 유다에게 준것만 부스러기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고기를 먹는 자들은 전부 죽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준다고 그랬어요. 얼마만큼 주냐면요, 두 규빗. 90cm입니다. 90cm씩 쌓아서 하룻길. 얼마나 많아요? 메추라기가. 그렇게 줘 놓고 그걸 씹기도 전에 다 죽여 버려요. 그건 고기 줬다는거에요? 안줬다는거에요? 주긴 주는데 왜 줘요? 먹고 죽으라고 준단 말입니다 저녁의 양식은. 민수기 11장 4절, 18절, 31절~34절 보세요.

4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섞여 사는 다른 인종을 앞에서는 중다한 잡족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탐욕을 품으매(자, 탐욕을 품으니까 뭘 달라 그래요? 고기를 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18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때에 우리에게 좋았다(토브. 애굽이 우리에게 선이야 이런 말하고 있는겁니다 토브가 선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애굽이 선이면 그들은 죽는거에요. 거기서 끄집어 내는게 구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들은 고기 먹어라' 하시고 주는거죠.

31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루하 나싸 에트 여호와에요. 이게 뭐냐면 바람. 루하. 이건 성령이죠? 루와흐. 성령이 나싸. 나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성막을 짊어지고 가다가 하나님이 여기다가 풀어 그러면 거기에 성막을 짓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거에요. 상징이죠? 그러고 다시 출발해~라고 할때 '출발해' 있죠? 이 단어인데 출발하다가 뭐냐면 기둥뿌리를 뽑아 버리다 파괴하다 이런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내내 한게 뭐냐면 성전을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거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게 뭐라고 그랬어요? 카라 라는 단어로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게 '부르심'이라니깐요? 성전, 그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가 파괴 되고 다시 사는 그것! 그것을 이스라엘이 '나싸' 세웠다가 기둥뿌리 뽑아 파괴하고 또 세웠다가 파괴하고 하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야 되는거에요. 그 '나싸'에요. '루하' 성령이 '나싸' 그렇게 기둥뿌리를 뽑아 파괴하려고 '에트 여호와' 여호와로 그들에게 오다. 이런 말이에요.지금.) 바다에서 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메추라기가 바다에 삽니까? 바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의 바다 아래의 것이죠? 그것이 와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죽는거에요. 그래서 그 고기를 바다에서 왔다고 기록하는거에요.)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레쯔 판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32 백성이 일어나 그 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33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 그 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 이었더라

기브롯 핫사와 이게 키브로트 핫타아바 거든요? 키브로트가 '케베르' '무덤', '매장지' 라는 뜻이고 '핫타아바'가 탐욕, 욕망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의 무덤' 이란 말이에요. 고기를 먹고 육신이 죽는거에요. '인간의 욕망의 무덤' 그러니까 저녁의 양식인 고기는 탐욕의 떡이요 죽음의 떡인거에요. 그거는 내일의 양식이 아닌거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리워 했던 그 고기가마에 그 고기가 무슨 고기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양고기요. 그걸 공통적으로 다 먹고 나왔다니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합심하여 그 고기를 그리워 하는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기의 대용으로 어떤 고기를 주어서 너희들 이거 먹으면 이게 저녁의 양식이고 이건 죽는거야. 광야에서 이거 먹으면 죽는거야 라고 말씀하시는거에요. 그거는 애굽에서 '먹고' '나와야' 되는 고기지 광야에서도 그 고기 먹으면 안되요. 광야에선 뭐 먹어요? 무교병 먹어요. 떡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유월절 양잡는 그시간이 무교절로 이렇게 물리는 거에요. 유월절에 고기 먹었으면 이제 무교절 칠일 동안에 무교병 먹는거에요. 떡 먹는거에요 떡. 만나 먹는거에요. 비로 내리는 만나. 그냥 '이게 뭐야?' 라는 만나가 아니라. 율법의 만나가 아니라 비로 내리는 은혜의 그 만나를 먹어야 되는건데 고기를 계속 추억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에요? 또다시 유월절로 돌아가서 그 고기의 그 어린양의 살과 피만 의지 하는거에요. 희생제사적 섬김.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에요. 교회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맨 그냥 '이천년 전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 '그분이 살과 피를 내게 먹이셨대.' 그리고 맨날 성찬식만 해. 그게 옳은거 같죠? 근데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그건 전설이라니깐요? 생명을 주시는 진짜 치유를 하시는 그분이 오셨는데 '전설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저 물을 한번 동할때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낫는대요' 이러고 앉아 있는거에요. '이천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래서 나는 그거 믿고 지금 교회 나와서 앉아 있답니다.' 그게 전설이지 뭐에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추억하면 안되요. 그 양을 추억하면 안된다니까요. 떡. 그걸 그게 뭔지를 말씀으로 내가 받아 그 유월절 어린양의 그 현실이 내 현실이 되야 되는거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야 그사람이 아들 인거라니까요. 근데 그 고기를 자꾸 달라고 그러면 그럼 너는 뭐냐는 거에요 너는. '그래 그 고기 줄께' 그러면 그양은 안죽은 양이에요. 계속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예수가 안죽었다니까요. 그 희생제사는 계속 드려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죽지도 않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받냐구요. 그러한 매일 매일의 그 희생제사적 섬김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게 율법주의의 이스라엘 이었잖아요? 그들을 엘리야가 자기 몸을 사용하여 그림으로 한번 보여줘요. 열왕기상 17장 1절~7절 보세요.

1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아합은 유다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고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가뭄입니다. 기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러한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야기 해주는거에요.

2 여호와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이게 판임 야르덴 이거든요? 야르덴이 요단인데 이게 야라드에서 나온 단어죠? 풍성하게 흘러 내리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흐르는 물에 씻어야 정결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 그 흐르는 물에 들어가 그걸 건너가 가나안으로 들어 가는거에요. 나아만도 흐르는물, 요단에 들어가 그 흐르다 이 말이 헬라어로 바꾸면 '레마' 에요 '레오' 흐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어디에요? 요단 앞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판임 그 흐르는 물, 진리에 나타난것. 이 세상의 것으로 준 그 흐르는것 율법이죠?) 그릿 시냇가에 숨고 (이게 '카라트' 라고 그랬습니다. 카라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세번째 제물로 갖구와. 그거 취해 라고 했을때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반으로 똑 쪼개는걸 바탈, 바타르 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제물을 사이에 두고 건너가 버려요 '아바르' 그러고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를 쭉 쪼개버리시는데 그게 카라트에요. 그게 그릿시내 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뭐냐면 열심히 제사지내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작 그들의 경계 너머로 건너가 계신거에요. 그래서 그릿 시내에요. 왜? 그들은 '야라드' 흐르는 물, 그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야 되는데 '판임 야라드' 율법으로 그 진리를 이해하고 열심히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그들의 대표로 니들이 지금 그렇게 열심히 행하고 있는 그게 지금 물이,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의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거에요. 그래서 앨리야가 가서 요단앞 '카라트' 에 가서 머물면서 뭘 받아 먹냐면 '까마귀' 이 까마귀가 저녁 '에레브' 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에요. 모음만 달라요. 저녁, 밤이 주는, 아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공중에 나는 까마귀를 봐라 그랬죠? 공중에 나는 새라고 그랬다가 그거 까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공중에 나는 새는 항상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은 저녁의 양식, 율법밖에 못준다니깐요? 그러니까 그 까마귀가 뭘 가지고 오냐면 고기떡을 갖고 와요. 고기떡. 그 고기를 저녁에 먹고 아침에 떡으로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도 고기떡, 저녁에도 고기떡. 고기양식.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죠? 그게 망하는거에요. 그래서 그릿시내 까지 완전히 말라버리고 엘리야가 경계를 넘어 이방으로 가는거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풍년이 이는 어떤곳이 있죠?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도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곳이 있어요. 유대 밖으로 건너 갔더니.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박살내고 있는거에요 지금요 엘리야가. 그 까마귀 '오레브'라는 그 단어가 '에레브'라는 단어하고 같은 문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그 광야에 오렙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족속이름을 어떻게 까마귀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어둡다 덮혀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들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줬을꺼에요. 까마귀가 물고 온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 하고 싶은건, 그 오렙족속이 엘리야를 먹인 그 이야기를 통하여 단어들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 인지 알아? 라고 메세지를 담아 주는 거라니까요. 아니 요만한 까마귀가 뭘 얼마나 큰걸 물고 왔겠어요. 그걸로 한 수천번 와야 아침상 하나 되겠네. 그 까마귀는 아니겠죠 그쵸? 그런거에요. 고기를 먹고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제 광야에서 하늘의 떡인 그 누룩없는 떡.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에요. 유월절 어린양의 살과 피로 애굽에서 나온 이들은 더 이상 그 유월절 어린양을 추억해서는 안되는거에요.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것으로 자기의 살과 피를 삼아야 되는거에요. 그게 어린양과의 연합 이라는 겁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여전히 그 어린양의 살, 고기죠 그게, 살, 고기 똑같은 단어에요. 바싸르. 그 살 만을 추억하고 그 공로만 치하 하고 있으면 그게 광야에서 죽음의 고기, 탐욕의 고기를 그리워 하는 형국인거에요. 그러니까 공로는 거기서 세웠으니까 우리는 이제 막살아도 되겠네? 이런 소리 하는거에요. 그 고기만 그리워해. 그 살만 그리워해. 그리고는 그게 선이지. 그게 복음이지. 이렇게 우기는 거에요. 그래서 나오는거에요 민수기 11잘 18절에. 애굽에서 그것이 선이지~ 토브지~. 그걸 좋았다, 재미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선이지' 이렇게 우긴다니까요. 나왔으면 여기서 진리로 내가 되어짐 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요. 그걸 연합이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나왔다고 우기는데 그 상태에서... 아니, 노자나, 석가나, 이런사람들도 그 율법으로 부터는 자유로웠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진리 비스무리한 것들을 '법에 묶이지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거야' 라는 경전을 쓴거 아니에요 그사람들이요. 그러면 그게 다라면 율법에서 풀려나는게 다라면 유교나 노자 장자의 그 도가사상이나 불교나 기독교나 뭐가 달라요? 전부 거기서 풀려 나는 거라면서요? 기독교는 그 진리로 되어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약이 붙어있는거에요. 성경에만. 다른 경전은 전부 구약에서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건너가라 건너가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 그러고 끝이에요. 모세에서 끝이에요 다. 그 진리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데가 없어요. 신약이 붙어 있는건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살아 있는 제물,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거지 그 죽은 제물들을 자꾸 추억하면 안되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너희는 이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지!' 라고 얘기를 하신거에요. 바울을 통해. '야 이제 죽은 제물로 너희 들이 살았으면 이제 산 너희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로 받을께!' 근데 자꾸 그 제물만 얘기해. 살아있는 나를 갖다가 바쳐야 되는데. 열심히 뭐, 희생 봉사 충성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내가 그분에게 바쳐져야 된다니까요. 자꾸 그냥 그 고기만 그 유월절 어린양만 추억하고 있는거죠. 그건 전설 이라니까요. 그건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떡인거야 라고 말씀하신거에요. 그 고기잖아요. 살과 피는 고기. 그 고기는 떡이지 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한발 더 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5 내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참된양식 참된음료가 진리양식 진리음료 이런말이에요. 알렛도스니까.)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가하나니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9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60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61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왜? 그들은 여전히 육의것 밖에 모르니까 살과 피 얘기 하니까 저 살을 어떻게 뜯어 먹어야 되는거야? 이러고 있는거에요. 그러면 '얘들아 니들이 지금 그 살과 그 피를 이야기 하고 있으면 그럼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이 육신을 가지고 올라가면 너희는 뭐뜯어 먹을거야? 라고 하시는거에요. 그거 아니잖아.)

62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뭐 뜯어 먹을래? 내 얘기가 그얘기냐? 라고 물어 보는거죠)

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건... 내가 지금 살과 피 이야기 했지? 그리고 그걸 떡이라고 그랬다. 내 말이 그 영. 그걸 영적으로 얘기 한거지 누가 이 살과 피 얘기하는거니?)

그러면 유월절 그 양고기 그 살과 피도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겠네요? 육은 무익하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지. '내 말을 진리로 받아들여! 그럼 그게 살과 피야. 누가 나 뜯어 먹으래냐?' '누가 날 떡으로 먹으래?' 그런거죠. 나를 믿으면 된다는거에요. 내가 무슨 내용을 담고 왔는지 그걸 진리로 이해하면 된다라는거에요. '말이 영이야. 말씀이 영이야' 그러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떡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고기라는 거죠? 그럼 지금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고 그걸 마음으로 가져 이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떡을 먹는거라니까요? 그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 주세요 또 들려 주세요가 뭐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기도 하는거에요 그게. 그래서 주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주린 배를 채우라는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 하셨던 거에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세요.

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는? 크로노스의 광야죠? 먹을게 없어야 되요. 주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뭘 아는곳이에요? '아! 그 말씀 외에는 우리를 이 주림에서 해결해 낼 수 있는게 없구나를 배우는 곳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40년에 모형으로 40일을 어떻게 하셔야 되요? 40년 동안 굶을 순 없으니까 굶어야 되요. 금식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예수님은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을 갖고 있어. 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갖고 있는데 세상에는 없는 그 양식 세상에는 그 양식은 없다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에서는 금식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금식을 하세요. 주린자로 사신다니까요? 그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주린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건 진리죠? 예수님을 구약에서 메시아는 항상 돌로 표시했습니다. 산돌, 모퉁이돌, 흰돌. 돌이 떡이 되어 우리에게 먹히는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잖아요?)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말이에요? 이게. 우리 분명히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들들, 장자들, 이스라엘을 주리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아까 읽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리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당연히 그 광야에서 주리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리게 하신거죠? 그리고는 예수님 혼자 정답을 내어 놓으시는거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거 아냐 그 떡을, 유월절 고기를, 그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서 니 마음의 양식으로 갖는거지. 거기까지 가라는거에요. 근데 유월절 고기, 광야의 만나,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걸 주셨대!' 거기서 그냥 칭송하고 끝나버리면? 그건 내것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에요. 굶으신 다음에 광야에서. '나를 배부르게 하는건 그 돌도 아니고 돌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때 돌비에 쓰여져서 내려왔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고. 그러니까 예수가 돌이죠? 돌이 떡이 되어야 하는데 그 떡은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거에요. 완성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예수는.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는거에요. '우릴 살리는건 그 말씀이지' '그 진리지' '그 하나님이지' '그 사랑이지' 정확히 대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 살은 떡으로, 떡은, 진리의 말씀으로 또 그 고기의 피는 물로, 물은? 성령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야 되는거에요. 중간에 멈춰버리면 안된다니까요. 아니,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은? 셋인데 그건 하나다' 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물과 피는 오히려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이세상으로 나타난 형상으로 오신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건들을 기록한 성경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진리를 가지면 되는거에요. 그분의 주권 그분의 능력 그거 인정하면 되는거에요. 나는 noting 이거.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전하면 되는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아래의 것. 아래의 소리. 아래의 글. 아래의 몸짓으로 위의 것을 전하게 되죠? 어떻게 전할 거에요 마음으로 마음을. 다운로드 해줄거에요? 뭐 어떻게 해줄거에요. 아래것으로 전해야되요. 그런데 그걸 그 위의 것으로 받아들여요. 어떻게?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거에요. 마태복음 14장 15절 보세요.

15 저녁이 되매 (자, 저녁이에요. 저녁이 되면 먹을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광야에요. 에레모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먹을게 없는거죠? 먹으게 없는곳이 광야니까.)

16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양식을 주어라 그래요.)

17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아서 내놓을 수 있는게 그거 였어요. 보리떡 다섯개 물고기 두마리. 보리떡은? 간음한 여자가 제물로 드리는 거였고, 그래서 짐승밖에 안먹었어요. 물고기는 난태생의 대표죠?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섯과 둘은 뭐에요? 계명이죠! 십계명을 하나님이 다섯, 다섯으로 나누어 주죠?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로 주잖아요. 자, 계명이 아래의 것으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건 죄에요. 부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광야에서 내어 놓을 수 있는것, 다 합심해서 내어 놓았더니 그거 밖에 없어요. 이걸로 배 부르겠다는거죠? 인간들이, 인류의 역사가, 크로노스가 내어 놓을 수 있는 생산물은 그거 밖에 없다니까요? 내 놓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18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축사 하셨다. 유로게오 라는 말이 뭐냐면, '유' 좋은, 선한, 이런말이에요. '로게오'가? 로고스에요. 하나님이 축사 하셨다라는건 그 율법을 오병이어를 그 부정한것을 하나님이 선한 로고스, 말씀으로 덮어 버리자 이걸 축사라고 번역했어요. 유로게오. 그게 그들의 양식이 되더라 라는거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광야에서 배불리 먹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요 그냥 괜히 막 쓴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7로 주어지죠? 이건 약속의 수입니다. 7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의 3이 땅의 4, 땅의 숫자가 4니까. 여기에서 이루어 지면 이 둘이 연합되어 완성, 안식, 7이라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언약의 수 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언약 7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땅의 어떤걸로 가르쳐 줘야되죠? 그러면 그건 계명으로 출애굽기에서 10으로 주죠? 십계명. 근데 이거를 이 계명을 언약으로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해하게 되면 그들을 아들, 12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들, 12가 된 이사람들은 이 10을 가지고 7이 된 자들이네요? 70. 이들을? 1라 그래요.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때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십자가, 나무를 던져서 단물로 만들어 주고 엘림으로 가는데 거기에, 12개의 우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죠? 이게 기둥,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둘다. 말씀. 거기에 괜히 나무가 70그루, 그걸 누가 세가지고 거기다가 적어놓고 그런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숫자가 나오는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말씀을 전하러 보내시는데 70으로 보내죠? 70명이라고 안되어 있어요. 70으로 보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계명을 받아서 나중에 이것을 이들을 가르치는 자로 70장로가 서죠? 이게 다 그냥 그런 숫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되면 이 70은 이 1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12사도 다음에 7집사가 오는거에요. 집사라는, 디콘이라는 단어 자체가 섬김 이라는 말이거든요. 섬김은? 성경에 나오는 섬김은 말씀으로 섬기는 것 밖에 없어요. 구제, 그런것들도 다 말씀으로 구제하는거지 무슨 뭐 돈으로 사람들 양식 사가지고 구제하고 이런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2이 된 그들은 반드시 7로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로가 되면 반드시 집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거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존 캘빈이 집사, 장로, 목사, 원로목사, 무슨 총회장, 이렇게 만들어 논건 그건 그냥 정치라고 보면되요. 그런거에 묶이지마세요. 장로가 뭔데 몇천만원씩 내고 그거를 받고 권사가 뭔데 몇백만원씩 내고 그것도 가격이 딱딱 정해져 있어. 아니 면죄부 팔던 종교개혁 이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요? 면죄부는 나쁘다니까 그거만 안파는거지 지금. 안팔긴 또 뭘 안팔어 안수기도 막 팔고 그러잖아요. 종교개혁 이전으로 다시 돌아 갔다니까요? 근데 무슨 개혁주의에요 이게. 개혁주의 아니지. 자, 그렇게 우리는 광야에서 말씀을 먹고 배불러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그거 구하는거에요. 그게 율법을 갖고 위의 것을 깨달아 아는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걸 10을 갖고 위의것 1을 깨달아 알면 그걸 십의 하나라고 그래요. 그걸 개역성경이 십일조라고 번역을 한거죠. 10으로, 계명으로 하나가 되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내가 받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번거에 십분의 일을 하나님이 받는다는게 아니라. 알아서 잘 쓰세요 헌금을 하든 뭘 하든. 그리고 십분의 구는 내꺼 이거 아니라, 십으로 니가 하나가 되면 너를 내가 받을께 이런말이에요. 그게 모노게네스잖아요. 하나를 가진자. 마음으로 가진자. 진리를 가진자. 그러면 그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거죠. 자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다섯, 둘, 그리고 그것으로 배부른 하나를 가진 어떤자, 이거 다섯달란트 두달란트 한달란트이야기가 오병이어의 이야기와 똑같은거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만나를, 이 양식을, 하늘의 떡을, 비같이 내려 줄테니까 한 오멜씩 받아. 거두어가. 이렇게 이야기 한거에요. 한 오멜 이라는게 십일조라는 말이에요. 너희들 내가 양식을 하늘의 양식으로 말씀을 던질 테니까 그걸로 하나가 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한 오멜만 가져가야 되는거에요. 그게 에바 십분의 일이라고 그러죠? 그게 십으로 하나가 되는거에요. 양식을 그렇게 안받으면 안된다니까요. 출애굽기 16장 15절~16절, 36절 보세요.

15 이스라일 제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라는 말이에요. 모르면 안된다니까요? 모르고 먹으면.)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16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36 오멜은 십분의 일 에바이더라

십으로 줄테니 하나로 받아라 이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늘에서 준 그 떡은 모세가 주는 떡. 모세가 주는 떡이 뭐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떡은. 그거 아니지 라고 이야기 한거에요. 요한복음 6장26~35절보세요.

26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러면 안된다고 그랬죠? 주린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떡으로 먹고 이 세상에서 배부르면 안되요.)

27 썩을 양식을 위하여 (여기서 썩을 양식으로 번역된 호브로시스 호아폴루미는? 멸망하게 만드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일하지 말고 영생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해놓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들이 애써서 거두는게 아니라 내가 주는거라고 하죠?)

28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믿으라니까? 믿어. 나를 말씀으로 가져야지. 그게 믿는거죠?)

30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신느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31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것이 아니지! 그걸 율법으로 준거니? 모세가 준거 아니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 (알렛데이야, 진리의 떡이지 그건) 을 주시나니

33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 줄게!)

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리라

나를 믿어!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진리의 양식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받은 이들이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를 가진 자들이고 그들의 이름은 이미 거룩해진 것이고 그들의 푸토코스의 존재가 되어서 그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거죠. 주린자로 살게 되는거죠. 그러면 그들은 배고픔 속에서 풍요에 거하게 되는거에요.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고픈 상태죠? 그런데 그걸 아는 이들이 바로,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게 부요한거야. 그게 배부른거야. 그랬죠? 그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 한거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보세요.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가난하고 먹을게 없어서 이야기 하는게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스스로 배부르는 방법을 배웠어.)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땅의 그 굶주림 배고픔 안에서 어떤게 풍요라는 걸 내가 알았단 뜻이에요. '나는 먹을거 업서도 괜찮고 부자로도 잘 살수 있어 겸손하게' 이런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런 배고픔 그런 부요함에 대해서 한줄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그 말씀이 없는 그 상태의 굶주림. 그것도 내가 알았고, 그걸 아니까 어떤게 풍요인지 내가 알게 되었어. 그게 풍요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한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죠.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율법주의의 대표적 선두주자로 열심히 쌓아 왔던 그 모든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 하는거에요. 이게 배부르게 하는거 아니구나! 이게 인간의 가치를 결정 짓는게 아니구나! 하고 안거에요. 그래서 나는 배고픈자가 맞구나, 굶주린 자가 맞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배불러야 되는거구나. 그래서 굶주림 속에서 풍요를 안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거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배고프셔야 되는거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다음주에 조금더 부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의 굶주림을 공허를 결핍을 이 세상것들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있는 가운데 그 속에서 '아냐 우리는 그 어떤것으로도 배부를수 업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굶주린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를 뿌려주셔서 우리는 진짜 주린자가 맞고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안 만큼 하나님 나에게 바로 내일의 양식 그 양식만을 나에게 퍼부어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할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